

사격 양지인, '금빛 총성' 울렸다

2024 파리올림픽

남원 하늘중학교 출신 첫 출전 올림픽에서 '金'

파리에서 대한민국 사격 돌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사격 선수인 양지인(21·한국체대)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 3번째 '금빛 총성'을 울렸다.

남원시와 남원체육회에 따르면 남원 출신인 양지인 선수가 지난 3일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사격 여자 권총 25m 결선에서 슈오프 끝에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파리올림픽 여자 사격 25m 권총 금메달을 딴 양지인.

한국 사격이 25m 권총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은 2012 런던올림픽 김정미(부산광역시청) 이후 12년 만으로 양 선수는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이 종목 세계랭킹 2위인 양지인 선수는 전날 열린 본선에서 완사 291점, 급사 205점으로 합계 586점을 기록, 6위에 올라 상위 8명에게 주어지는 결선행 티켓을 따내 3일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지인 선수가 처음 사격을 시작한 건 남원하늘중학교 재학시절 1학년 때 수행평가(체육)로 사격을 경험하면서였다.

'정조준'을 잘하던 그녀의 재능을 한 눈에 알아본 남원하늘중학교 정인순 교사의 권유로 선수의 길을 걷게 된 양 선수는 중학교 2학년 때인 2018년에는 최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공기권총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이 후 양 선수는 고향 남원을 떠나 2019년 서울체고로 진학, 고등학교에서 25m 권총으로 주 종목을 바꿨고, 2022년 한국체대에 입학, 2023년에는 성인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그녀는 올해 1월 아시아선수권대회와 5월 사격 월드컵에서 두 차례 결선 41점으로 세계 신기록과 타이 기록을 수립한 데 이어 마침내 3일 프랑스 파리 올림픽 사격 25m 권총에서 금메

달을 획득해 한국 선수단에 이번 대회 8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하늘중학교 출신인 양지인 선수가 2024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 전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줘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면서 "제2의 양지인 선수같은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사격선수가 남원에서 발굴, 육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하늘중학교 정인순 교사는 "항상 고향에 내려오면, 사격 끝나면 후배들까지 너무 잘 챙겨줘서 고맙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경기운명을 너무 잘 해줘서 금메달까지 획득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면서 "앞날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사격선수인만큼 더 빛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남원시는 사격육성종목 운영학교로 남원하늘중학교, 남원용성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원시 체육회에서는 매년 소년체전 출전 남원출신 전북 특별자치도 대표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양지인 선수가 금메달을 손에 넣으며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 여덟 번째 금맥을 쫓았다(3일 현재, 한국시간).

한국 사격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 메달 5개를 가져갔다.

'여고생 명사수' 방호진(대구체고)이 공기소총 10m 여자 종목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고, 오예진(IBK 사격단)과 김예지(임실군청)가 각각 공기권총 10m 여자 종목에서 각각 금메달,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하준(KT)-금지현(경기도청)은 공기소총 10m 혼성 종목에서 은메달을 얻었다.

/남원=김기우 기자



한국 여자 양궁 개인전 '승전보'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개인전 시상식에서 임시현(사진 가운데)과 남수현(사진 왼쪽)이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고 기뻐하고 있다.

kt wiz 퓨처스 '서머리그 이벤트' 익산시

내일부터 사흘간... 관람객에 기념품·치킨·음료 제공
갤럭시 Z플립6 등 경품 추첨, kt wiz 치어리더팀 응원전

익산야구장에서 한여름의 무더위를 식혀 줄 kt wiz 퓨처스 '서머리그 이벤트'가 열린다.

익산시와 kt wiz 야구단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익산시민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kt wiz 야구단은 한화 이글스와의 퓨처스 서머리그 경기가 진행되는 3일 동안 익산야구장 관람객에게 기념품을 비롯해 치킨과 음료를 제공한다. 특히 갤럭시 Z플립6 경품 추첨과 이닝 이벤트를 통한 경품 지급이 매 경기 예정돼 있다.

또한 경기 시작 전 오후 4시 20분부터 40분간 선수단 팬 사인회를 진행한다. 경기가 시작되는 오후 6시부터는

kt wiz 치어리더팀의 응원전 등이 더해져 관람객들과 함께 즐기며 응원 의 열기를 북돋을 예정이다.

kt wiz 관계자는 "더운 여름날 익산 시민들이 야구장을 찾아 즐겁게 관람하며 무더위를 날려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익산시민과 함께하는 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kt wiz와 함께 노력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지속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번 시즌 야구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는 시민들과 함께 kt wiz의 선전을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올림픽 최고 스타 김예지의 다짐

"LA선 실망 시키지 않을게요"

주 종목 25m 권총 결선 좌절... "실망 안겨 죄송... 따뜻한 응원 감사"

세계의 눈을 사로잡은 사격 김예지(임실군청)가 예상과 다른 결과로 파리 여정을 마무리했다.

김예지는 지난 2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사격 25m 권총 여자 본선에서 600점 만점에 575점을 기록했다.

본선에 나선 40명 중 27위에 그쳐, 상위 8명이 오르는 결선행이 좌절됐다.

25m 권총은 그의 주 종목이기에 충격이 컸다. '통한의 한 발'이 두 고두고 아쉬웠다.

25m 권총은 본선에서 완사 30발과 급사 30발을 쏘 합계 점수로 결선 진출자를 정한다. 완사는 5분 내로 5발씩, 총 30발을 쏜다. 급사는 3초에 1발을 쏘고, 7초 대기하는 방식으로 총 30발을 쏜다.

완사 합계 290점을 기록한 김예지는 급사에서 합계 285점에 그쳤다. 전체 41번째 발(급사 11번째 발)에서 사격 시간 3초를 넘겨 0점 처리가 된 것이 뼈아팠다.

경기 후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를 통해 올림픽을 마친 소회를 밝혔다.

김예지는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 많이 기대하고 응원해 주셨을 텐데 제가 큰 빅 이벤트(0점 기록)를 선사하는



바람에 여러분의 실망감이 커졌을 거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누구보다 아쉬움이 컸을 법하지만 '빅이벤트'라는 말로 자신의 실수를 드러내며 애써 웃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 너무나 감사했다"고 진심을 보였다.

김예지는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사격 대표팀의 유력한 메달 후보였다.

기대대로 지난달 28일 열린 공기권총 10m 여자에서 은메달을 수확,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시상대까지 올랐다. 조영재(국군체육부대)와 나선 공기권총 10m 혼성에서는 결선에 오르지 못했지만, 주 종목이 남아있었기에 금메달을 향한 의지는 더욱 불타다.

그 사이 김예지를 향한 주변의 시선이 바뀌었다.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됐다.

지난 5월 국제사격연맹(ISSF) 바쿠 사격 월드컵 25m 권총 결선에서의 모습이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를

모은 덕이다.

영상에서 그는 세계신기록을 작성하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시종 무심한 표정을 지었다.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는 수천만 회를 넘어갔고,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한 영화 '존 워'에도 비교됐다.

엑스(X·구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까지 나서 "따로 연가할 필요가 없다. 액션 영화에 캐스팅하자"고 글을 남기면서 김예지를 향한 관심은 더 증폭됐다. 미국 CNN, 영국 BBC 등 해외 언론들도 파리 올림픽 최고 스타로 김예지를 보도했다.

이렇듯 큰 관심 속에서 이번 대회 마지막 종목에 나선 그는 결선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다. 이번 대회로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떨친 김예지의 시선은 다음 올림픽이 향하는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고 있다.

김예지는 "이제 4년 뒤 LA 올림픽을 다시 준비할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그뿐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글과 함께 영어로도 메시지를 남겨 뜨거운 관심을 보내준 해외 팬들에게도 자신의 다짐을 전했다.

/뉴시스

제3회 장수가야배 전국승마대회 성료

장수군은 ㈜나블리조트(대표 서연주) 주최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24년 제3회 장수가야배 전국승마대회'가 장수국제승마장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일반 80명, 유소년 80명 등 총 160여 명의 선수와 150두의 마필이 참가해 장애물, 마장마술 등 17개 종목 14경기에서 전국의 승마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

보이며 열린 경쟁을 펼쳤다.

한편, 장수군은 2018년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으며 국제규격의 실내 승마장, 승마체험장, 승마레저타운 등 말산업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각종 승마대회를 유치해 생활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AMITIE

사단법인더문화와 함께하는 클래식 페스티벌 2024

Trio

Amitie

[QR CODE]

Amitie Trio

Amitie Trio

Amitie Trio

2024. 8. 9(금) 7:30pm

문화공간 이름 ART SPACE

티켓 | 전석 3만원

예약 | L&R 배역 'Amitie' 검색

문의 | 카카오톡 "문화공간이름" ☎ 063. 223. 5323

주최·주관 | "이름" 문화재단

후원 | "이름" 문화재단, "이름" 문화재단, "이름" 문화재단